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2022-15호 | 2022년 6월 29일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발행인 노웅래 | idp.theminjoo.kr

팩트체크: 0.01% 재벌의 법인세 실질부담이 높은가?

채 은 동 연구위원

< 요약 >

○ 진실1.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려는 0.01%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높지 않다.

게다가 최근 전체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은 낮아졌다

- 윤석열 정부는 과표 3천억원 초과법인 100여개 최고수익 법인의 세율인하 계획을 최근 발표
- 공제감면으로 인해 3천억원 초과 법인의 실효세율*(19.6%)은 200~500억원 법인(19.5%)과 유사
 - * 법인세 실효세율은 세액공제·감면 등을 반영한 기업의 실질적인 조세부담 정도를 나타냄
- 과표기준 실효세율(귀속기준) : 2017년 17.6% → 2018년 19.1%* → 2019년 17.5%**
 - * 25% 최고세율 도입 이후 1.5%p 증가 ** 공제감면액 2.2조원 증가로 인해 1.6%p 감소

○ 진실2.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

(1) 명목최고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만, 10~22% 구간을 고려하면 OECD 평균보다 낮다

- 우리나라는 4단계 세율 구조인 반면, OECD 39개 중 284개 국가는 단일세율 (2단계 세율 11개국)
-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부가세 포함) : 우리나라 27.5% (10위) > OECD 평균 23.1%
- 누진세구조 반영한 세율(지방세등 포함) : 우리나라 23.0% (20위) < OECD 평균 23.1%

(2) 명목최고세율은 일본·영국보다 높지만, 반대로 실효세율은 일본·영국보다 낮다

- 법인세 최고세율 : 우리나라(25%) > 일본(23.2%) > 미국(21%) > 영국(19%) > 캐나다(15%)
- 법인세 실효세율 : 영국(19.8%) > 일본(17.7%) > 우리나라(17.5%) > 미국(12.9%) > 캐나다(14.8%)

○ 진실3. 미국·영국 등 일부 OECD 국가는 최근 이익이 급증한 대기업 증세에 나섰다

- 미국(21%)·영국(19%)은 법인세율을 25%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 추진
- 영국·스페인·이탈리아 등은 최근 초과이익이 발생한 대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세(Windfall Tax) 도입

○ 정부는 기존 정책을 뒤집고 이익이 최근 급증한 대기업의 세금을 낮춰주기 보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우선 지원하고 향후 법인세 감면제도를 개편할 필요

- KOSPI200 상위30개 기업의 세전순이익 : ('19년) 64조원 ('20년) 84조원 ('21년) 155조원 (84% 증가)
- 기업의 횡재공제항목(windfall tax credit)에 대해 투자·고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필요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방안

○ 정부는 “경제정책방향” 에서 법인세율을 2012년 MB정부 구조로 우선 돌리겠다고 발표

- MB정부 : 기존 (13%, 25%) 세율구조를 (10%, 20%)로 바꾸는 로드맵 법제화

부자감세에 대한 부담으로 수정한 (10%, 20%, 22%) 체계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유지

- 문재인정부 : 2018년부터 3천억원 초과구간 최고세율 25% 신설 (포르투갈: 유사증세 사례)

- 윤석열정부 : 과표 3,000억원 초과구간의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 우선 발표 (2022.6.16.)

최저세율구간을 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 검토 시사(2022.6.27.)

< 표 1 > 과세표준 규모별 명목 법인세율 추이: 2005~2022년

(단위: %)

	노무현정부	MB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8년	개정안
1억 이하	13	11	11	10	10	10	10
2억 이하	25						
200억 이하		20	20	20			
3,000억 이하					22	22	22
3,000억 초과		25					

주: 밑줄 그은 부분은 기존 대비 세율이 변경된 구간을 의미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인세법”을 참고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과세표준 금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약 100여개 0.01% 법인에 대한 감세 시작

- 2020년 신고법인을 기준으로, 84개 법인에 대해 232억원(지방세 포함)씩 법인세 혜택

※ 2021년 신고법인 906,325개 중 0.01%인 103개 법인이 여기에 해당 (국세청 제출자료)

< 표 2 > 과세표준 규모별 해당 법인수

(단위: 개)

	법인세 미부담 기업	법인세 부담기업				전체
		2억원 이하	2억원~200억원	200억원~3,000억원	3,000억 초과	
2018년 소득기준 (2019년 신고)	383,807 (48.7%)	310,542 (39.4%)	91,677 (11.6%)	1,309 (0.2%)	103 (0.01%)	787,438 (100.0%)
2019년 소득기준 (2020년 신고)	418,215 (49.9%)	325,076 (38.8%)	93,217 (11.1%)	1,416 (0.25)	84 (0.01%)	838,008 (1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법인세(8-1-4)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정부안은 과표구간 단순화(최저 2개)를 포함하는데, 최저세율구간 조정 검토 시사

- 과세구간수 : (현행) 4개 → (최고구간 세율 인하) 3개 → (추가 조정) 2개

- 과세표준 단순화에 “2개 방안” 이 포함된 것은 추가적인 세율인하를 의미하며, 최저세율구간을 조정하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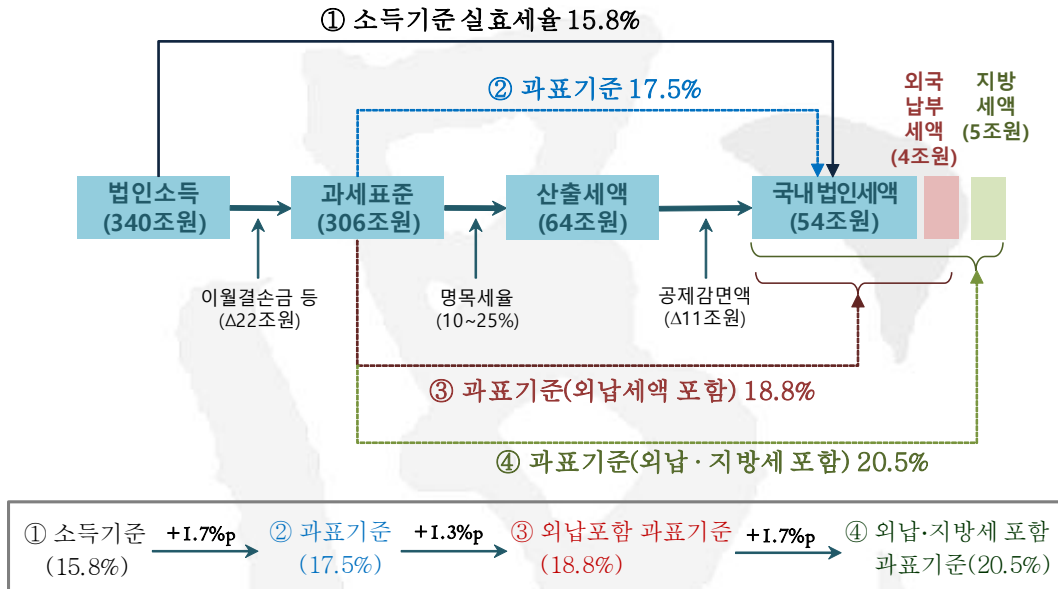
- MB정부는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2년부터 (10%, 20%) 세율 구조를 법제화했다가 철회

2. 법인세 실효세율

○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개념 : 세법에 의해 정해진 법인세 법정세율과 각종 공제·감면제도로 인한 세부담률 간 차이가 발생
- 4가지 지표(국회예산정책처, 2016) : 법인의 국내 총부담세액을 기준으로 소득 또는 과표 대비 세부담을 나타낸 ①소득기준 실효세율과 ②과표기준 실효세율이 사용. 국내세액에 해외납부세액까지 포함한 ③과표기준(외납세액 포함)과 지방세까지 포함한 ④과표기준(외납·지방세포함) 실효세율

< 그림 1 > 실효세율 계산방법 : 2019년 소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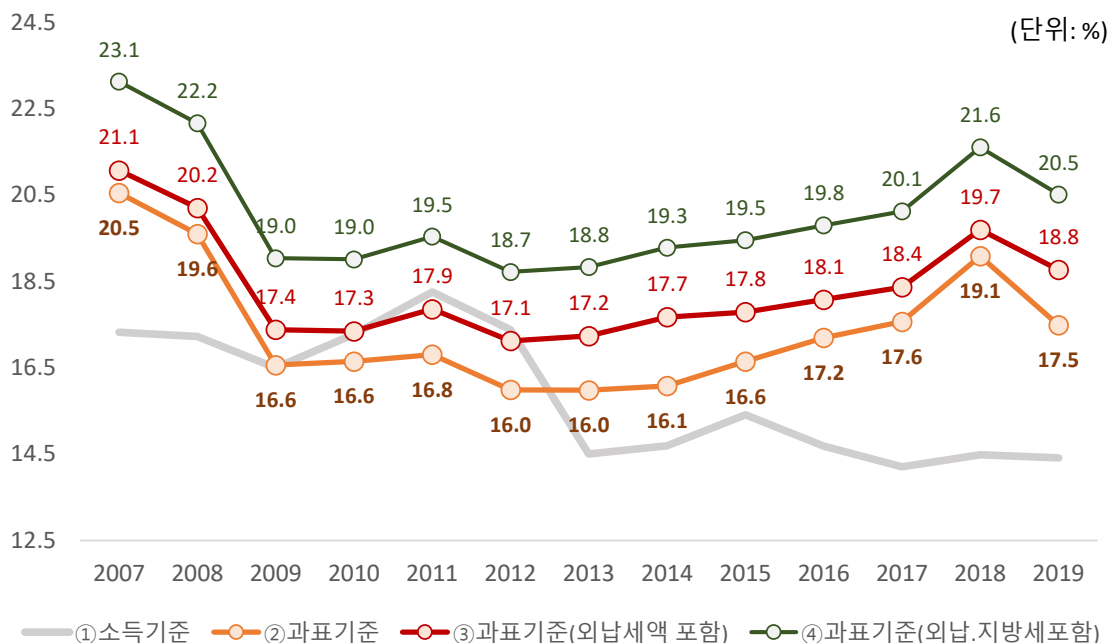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의 2021 국세통계연보 법인세(8-1-4, 8-3-2)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실효세율은 2018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상승했으나 2019년 공제감면이 확대되어 하락

-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인해 공제감면이 확대되어 실질 세부담이 추가 감소 예상

< 그림 2 > 연도별 법인세 실효세율: 2007~2019년 소득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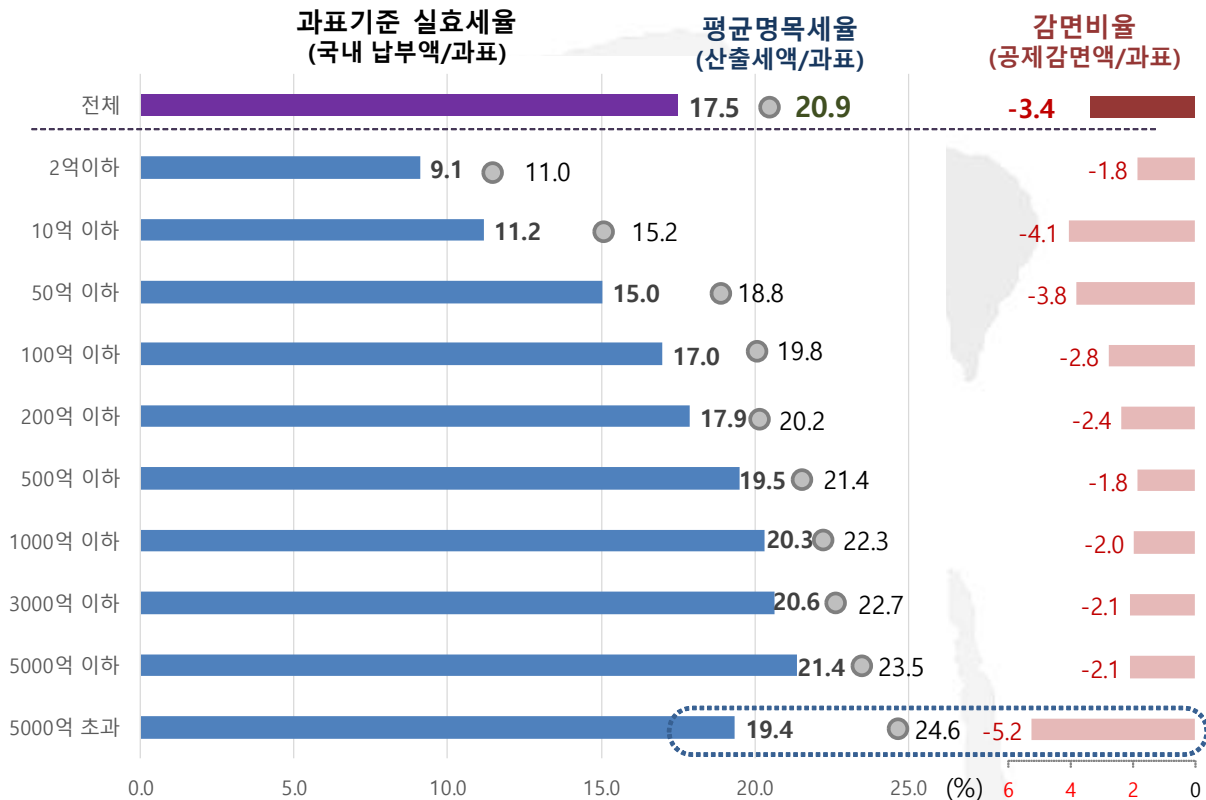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법인세(8-1-4, 8-3-2)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과표금액이 증가하면 실효세율이 증가하다가 5천억원 초과구간에서 실효세율 역전 발생

- 과표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실효세율도 함께 증가하다가, 과표 5천억원 초과구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실효세율이 오히려 감소(실효세율 역전현상). 과표 200~500억원 기업보다 낮아짐
- 글로벌 대기업이 과표 5천억원 그룹(2020년 신고법인 49개)에 다수 포함되며, 해당 기업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 공제함에 따라 실효세율이 떨어짐. 다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감안하더라도, R&D 비용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가 대기업에 대거 귀속되어 실효세율 역전현상은 존속

< 그림 3> 과세표준 금액별 법인세 실효세율: 2019년 소득기준



자료: 국세청의 2021 국세통계연보 법인세(8-1-4)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5천억원 초과구간의 실효세율은 19.4%로 과표 100~200억원 법인(19.5%)보다 낮음

- 2018년 법인세율 인상으로 평균명목세율이 높아졌으나, 2019년 평균공제비율이 크게 상승하여 평균실효세율이 2020년 다시 감소

< 표 3 > 과표 5천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 실효세율: 소득기준

(단위: 개, 억원, %)

	신고 법인수	평균 과세표준액	평균 법인세액	평균 명목세율	평균 공제비율	평균 실효세율
2015	49	17,697	3,048	22.0	4.8	17.2
2016	60	16,551	2,945	22.1	4.3	17.8
2017	64	21,127	3,902	22.2	3.7	18.5
2018	61	22,667	5,025	24.3	2.2	22.2
2019	49	17,491	3,386	24.6	5.2	19.4

자료: 국세청의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법인세(8-1-4)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3. 법인세 명목세율(지방세·부가세 포함)의 OECD 국제비교

○ 우리나라의 지방세포함 법인세 최고세율 27.5%은 OECD 38개국 평균 23.13%보다 높았음(10위)

- 우리나라는 과세표준 구간이 4개이고 과표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
- OECD 38개 중 24개 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2단계 세율 11개국)하며, 세율이 여러 개인 국가인 경우 이익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추가세율(프랑스 0.825%, 포르투갈 3~7%)을 적용
- 예를 들어, 과표 4천억원의 명목세율은 우리나라 24.9%*, 오스트리아·벨기에·스페인 등 25.0%
* 24.9% = $[(2\text{억} \times 10\%) + (198\text{억} \times 20\%) + (2800\text{억} \times 22\%) + (1,000\text{억} \times 25\%)] \times 1.1\text{배} / 4\text{천억원}$

○ 우리나라의 누진적인 과세구조를 반영한 2019년 평균명목세율은 23.0%로서, OECD 평균 23.1%보다 낮아지며 법인 순위 또한 20위로 OECD에서 중간 정도임

- 우리나라는 법인의 이익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증가하는 초과 누진세 구조로서, 상당수가 단일세율 구조인 OECD와 최고세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5% 최고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인은 100여개로 소수 대기업만 적용되는데 반해, 상당수 OECD국가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모든 법인에게 최고세율 적용
- 소득별 평균명목세율(지방세 포함) : 10억 19.8%, 200억 21.9%, 1천억 23.7%, 4천억 24.9% 등

< 표 4 > OECD 국가별 법인세 최고세율 : 2022년

(단위: %)

	법인세 최고세율	최고세율 (부가세포함)	순위		최고세율	최고세율 (부가세포함)	순위
Colombia	35.00	35.00	1	Israel	23.00	23.00	19
Portugal	30.00	31.50	2	Turkey	23.00	23.00	19
Australia	30.00	30.00	3	Denmark	22.00	22.00	21
Costa Rica	30.00	30.00	3	Greece	22.00	22.00	21
Mexico	30.00	30.00	3	Norway	22.00	22.00	21
Germany	15.83	29.83	6	Slovak Rep.	21.00	21.00	24
Japan	23.20	29.74	7	Sweden	20.60	20.60	25
New Zealand	28.00	28.00	8	Estonia	20.00	20.00	26
Italy	24.00	27.81	9	Finland	20.00	20.00	26
Korea	25.00	27.50	10	Iceland	20.00	20.00	26
(누진구조반영)	(20.87)	(22.95%)	(20)	Latvia	20.00	20.00	26
Canada	15.00	26.21	11	Switzerland	8.50	19.70	30
France	25.83	25.83	12	Czech Rep.	19.00	19.00	31
United States	21.00	25.81	13	Poland	19.00	19.00	31
Netherlands	25.80	25.80	14	Slovenia	19.00	19.00	31
Austria	25.00	25.00	15	United Kingdom	19.00	19.00	31
Belgium	25.00	25.00	15	Lithuania	15.00	15.00	35
Spain	25.00	25.00	15	Ireland	12.50	12.50	36
Luxembourg	18.19	24.94	18	Chile	10.00	10.00	37
OECD평균	21.49	23.13		Hungary	9.00	9.00	38

주: 누진구조를 반영한 명목세율은 2019년 법인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OECD, Tax Database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4. 법인세 실효세율의 주요국 비교

○ 최고명목세율 : **우리나라(25.0%)** > 일본(23.2%) > 미국(21.0%) > 영국(19.0%) > 캐나다(15.0%)

- 한국 : 법인세 최고세율을 2009년 22%로 인하한 후 2018년 25%로 다시 인상
- 미국 : 트럼프 정부는 2017년까지 8단계(15%~35%)였던 세율을 21% 단일세율로 전환했으며, 바이든 정부는 세율인상안을 제출하여 논의 진행(행정부 28%, 하원 26.5%)
- 영국 : 2017년 19%로 세율을 인하한 후 단일세율 적용
- 일본 : 중소기업 15%(800만엔 이하) 또는 19%(800만엔 초과), 이외 23.2%

< 표 5 > 주요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변화 : 2007~2020년

(단위: %, %p)

	2007	2010	2015	2017	2018	2019	2020	변화분
한국	25.0	22.0	22.0	22.0	25.0	25.0	25.0	-
미국	35.0	35.0	35.0	35.0	21.0	21.0	21.0	-14.0
영국	30.0	28.0	20.0	19.0	19.0	19.0	19.0	-11.0
일본	30.0	30.0	23.4	23.4	23.2	23.2	23.2	-7.8
캐나다	21.0	18.0	15.0	15.0	15.0	15.0	15.0	-6.0

자료: OECD, Tax Database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 실효세율 : 영국(19.8%) > 일본(17.7%) > **우리나라(17.5%)** > 캐나다(14.8%) > 미국(12.9%)

- 한국 : 법인세 최고세율은 가장 높지만, 초과누진 과세구조이고 세액공제 등이 다수 적용되어 낮은 실효세율 유지. 2017년까지 실효세율이 4개국 중 가장 낮았음
- 미국 : 2018년 개편으로 실효세율이 2017년 27.3%에서 2018년 12.9%로 급감
- 영국 : 명목세율은 가장 낮지만 실효세율은 가장 높았음. 명목세율 이외에 은행에 대한 부가세, 석유·가스회사에 대한 추가과세 등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명목세율보다 높아짐
- 일본 :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낮으나 실효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았음
- 캐나다 :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에 근접

< 표 6 > 주요국의 법인세 과표기준 실효세율 비교 : 2007~2019년 소득기준

(단위: %, %p)

	2007	2010	2015	2017	2018	2019	변화분
한국	20.5	16.6	16.6	17.6	19.1	17.5	-3.1
미국	26.5	21.8	24.9	27.3	12.9	n/a	-13.6
영국	20.8	24.9	19.1	19.2	19.3	19.8	-1.0
일본	24.6	25.9	18.4	17.6	17.4	17.7	-6.9
캐나다	n/a	15.4	13.5	14.0	14.8	n/a	-0.7

주: 실효세율은 법인세 과세표준(미국 income subject to tax, 영국 chargeable profits, 일본 法定事業年度分の所得金額, 캐나다 taxable income) 대비 결정세액 비율. **지방세, 부가세 등 미포함**

자료: 각국의 연도별 법인세 자료(한국 국세통계연보 8-1-4, 미국 Table 4. Number of Returns and lected Tax Items, by Size of Total Income Tax After Credits, 영국 Table 4. Income, allowances, tax liabilities and deductions by amount, 일본 現事業年度分の課税状況, 캐나다 Corporate Statistical Tables) 자료를 참조하여 민주연구원 작성

5. 주요국의 최근 법인세 관련 과세 강화 정책

- 미국·영국은 코로나로 인해 나빠진 국가재정 회복을 위해 25% 이상으로 법인세를 인상할 계획
 - 미국 :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21%에서 2023년 28%(하원 26.5%*로 축소)로 인상 계획 * 중국 25%, 선진국평균 23.5% 고려
 - 영국 : 법인세율 현행 19%에서 2023년 최고 25%(25만파운드 이상 기업)까지 인상하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악화된 국가재정수지를 회복하겠다는 계획
-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집중된 대기업에 대해 초과이익세(횡재세, Windfall Tax) 도입 :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 도입
 - 2022년 3월 에너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도매 388%, 소매 36% 급등함에 따라, 유럽 6개국은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지원할 계획(에너지경제연구원, 2022.6.)
 - 영국 : 이익이 급증한 에너지기업(석유·가스기업 등)에 대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 추가 과세
 - 이탈리아 :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500만유로 이상 이익이 증가하고 이익률이 10% 이상이 에너지 기업에 대해 25%의 일회성 추가 부담금 과세
 - 스페인 :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발전소에 횡재세(초과이익세) 과세
 - 헝가리 : 2022~2023년 동안 은행, 보험, 에너지, 소매, 통신, 항공, 의약품유통 등 8개 분야의 초과이익에 대해 특별세 부과. 석유제품 제조업에 25%, 전력생산업체에 65%의 세율 과세
 - 미국 : 이윤율 10%를 초과하는 석유회사에 대해 존 21% 법인세에 21% 세율을 추가하는 방안 검토

6. 지금은 세율인상보다 물가상승에 대처할 시기

- 최근 법인소득이 급증하는 등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부담을 낮춰줄 유인이 부족
 - 2022년 초과세수 53조원 중 법인세에서 절반 이상인 29조원 발생
 - KOSPI200에 포함된 상위 30개 대기업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집계한 결과, 2019년 64.2조원, 2020년 72조원에서 2021년 143조원으로, 2021년 순이익이 전년대비 97.5% 증가
 - 예) 삼성전자 : 2019년 30.4조원, 2020년 36.3조원, 2021년 53.3조원, 2022년 1분기 15.1조원
 - SK하이닉스 : 2019년 2.4조원, 2020년 6.2조원, 2021년 13.4조원, 2022년 1분기 2.8조원
 - 현대자동차 : 2019년 4.2조원, 2020년 2.1조원, 2021년 8.0조원, 2022년 1분기 2.3조원
 - 정유 4사 : 2019년 1.8조원 , 2020년 -5.6조원, 2021년 4.9조원, 2022년 1분기 4.2조원
- 우선 정부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향후 법인세는 기업의 횡재공제항목에 대해 투자·고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면제도를 개편할 필요
 -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 휴대폰전화료(가중치 3.12%), 휘발유(가중치 2.08%), 경유(가중치 1.30%) 등의 분야*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유도하는 정책 필요
 - 중기적으로 기업이 회사를 운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횡재공제(windfall tax credit)에 대해, 투자·고용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